

금호타이어, 신규자금 5000억원 투입

자본전액 잠식 상장폐지 위기 ...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되는 대로 지원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5000억-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3500억-6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4월20일 오후 주요 채권금융기업들을 소집해 실사 결과와 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실사 결과 200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손실로 부채가 자산보다 1900억원 더 많은 마이너스 자본 상태로, 자본이 전액 잠식돼 상장규정에 따라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는 대로 금호타이어에 이미 지급한 1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6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500억-6000억원의 출자전환과 주주별 차등 감자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4월23일이나 26일 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금융기업들의 동의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중국공장의 부실이 심해 신규자금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국공장은 영업을 위한 핵심 공장인 만큼 폐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완전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피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단 감자와 출자전환을 추진해 금호타이어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며 “금호타이어가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계획은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의 75%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0>